

“北, 도발수위 고조...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 없어야”

尹 대통령, 긴급 NSC 상임위 참석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해 나가야”

합참 “유엔 안보리결의 명백한 위반
추가도발 대비해 동향 추적감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북한이 지난 2일에 이어 3일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틀간 잇따라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

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전날(2일)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에 주목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임을 지적했다.

긴급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호 NSC 사무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군은 3일 오전 7시 40분경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과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1920km, 속도 약 마하 15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30km, 고도 약 70km,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사외이사에 허은녕·유명희... 돌격 ‘뉴삼성’ 美, 4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

삼성전자, 54기 임시 주주총회 개최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는 논의 안해



허은녕 서울대 교수 /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삼성전자가 공백이 생긴 이사회를 발 빠르게 재구성하며 ‘뉴삼성’ 토대를 다졌다.

삼성전자는 3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천연수원에서 제54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했다.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현 회장)을 등기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에는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외이사 2명이 사임하면서 4명으로 줄어든 상태, 사내이사가 5명이라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을 새로 채워야한다.

법적으로는 다음 주총까지 재구성하면 된다고 명시됐지만, 삼성전자는 조기에 이사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단행했다.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 준법 경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회장을 등기 이사로 복귀하는 안건을 포함해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중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외이사 두 분이 지난 4월과 5월 사임 및 퇴임하심에 따라 신규로 사외이사 두 분을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허은녕 서울대 교수와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각각 찬성률 88.29%, 99.25%로 가결됐다.

삼성전자는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사전 신청한 주주를 대상으로 주총을 중계했다. 전자 투표를 통해 주주

의사도 최대한 반영했다.

주주총회 시작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현장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어두운색 복장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삼성전자가 이사회 구성을 정상화하면서 ‘뉴삼성’ 구상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용 회장 승진 이후 그룹 컨트론타워 재구축을 비롯해 지배구조 개편과 이 회장 등기이사 선임 등 여러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이 회장 등기 이사 선임은 이사회를 거쳐 내년 3월 정기주총서 결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분 정리와 지주사 설립 등 다양한 추측이 돌고 있다.

일단 이 회장은 위기 속 경영 정상화에 몰두하며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이다. 취임사뿐 아니라 최근 창립기념일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내년 초까지 해외 출장 일정이 빠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

기대와 달리 ‘통화긴축’ 기조
기준금리 목표 범위 0.75%p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사진)은 괴파(입장선화)이 아닌 때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를 드러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00~3.25%에서 3.75~4.00%로 0.75%p 올렸다.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준은 지난 6월부터 7·9·11월까지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것으로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그동안의 긴축 통화정

책의 누적된 효과와 통화정책이 경제와 물가 등에 미치는 시간적 격차, 경제 및 금융 상황 진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12월 FOMC) 회의 또는 그 다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FOMC에선 0.75%p가 아닌 0.5%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긴축하지 못하거나 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美 금리인상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추경호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정부는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연 이틀 미사일 도발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

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3.0~3.75%에서 3.75~4.0%로 높아졌다. 이로써 한국(3.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포인트로 벌어졌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가계소비 위축에 성장세 둔화 우려”

>> 1면 ‘고금리 시대 위기의’서 계속

박 팀장은 “7월에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채 5년 물이 큰 폭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다”며 “미국 긴축 가속화에 대한 시장 기대와 금융채 발행 확대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경기

침체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는 따르면 가계동향 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중 이자 부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5.7% 수준으로 2020년 상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자 비용 규모 또한 올 상반기 중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실질 소비지출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 소비지출 역시 올 상반기 전체 가구 0.6%, 이자 미부담 가구 2.5%로 증가한 반면 이자 부담 가구는 -2.4%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계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금리로 이자 부담 가구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